

전남어촌특화센터, 큰징거미새우 기술교류 워크숍

국내 양식 창업자들 급증
산업화 위한 양식기술 개발
안정적 종자보급 기반 구축



지난 15일부터 1박2일간 광주에서 열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민물왕새우양식협회 주최 '큰징거미새우 기술교류 워크숍'에 참가한 양식 창업자 및 창업 예정자 100여 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와 한국민물왕새우양식협회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후원한 '큰징거미새우 기술교류 워크숍'이 큰징거미새우 양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1박2일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난 2017년부터 센터가 진행한 기술이전교육, 창업지원컨설팅을 받은 전국의 교육이수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큰징거미새우 (Giant river prawn)는 징거미새우과의 민물새우로, 태국이나 대만 등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며 수컷이 체장 약 40cm, 400g 까지 자라는 세계 최대의 민물새우다. 고급 식재료로 인기가 높고, 눈에서 양식이 가능해 최근 국내에서도 양식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큰징거미새우 양식의 전망과 과제'로 기초발제를 한 김봉래 박사는 "냉동 수입산과 국내산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식용, 실내낚시, 관광용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

는 점에서 향후 산업화를 위한 양식기술 개발, 안정적인 종자보급 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악 전남도 수산종자연구소 팀장은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 적용의 문제점과 해법'에서 "큰징거미새우 양식을 위해서는 물 관리, 어미새우 관리, 유생-양성관리, 포획, 유통, 사료, 양성밀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자생산과 중간양성, 판매유통의 3박

자를 갖추기 위한 정부, 지자체, 양식업체 등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수 (주)에코아쿠아텍 이사와 황경도 덕산수목원 대표 등이 '큰징거미새우 종묘생산의 현실과 문제점', '큰징거미새우 양식과 6차 산업화의 적용'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박용이 한국민물왕새우양식협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여전히 영세하고 열악한 큰징거

미새우 양식업계의 성장과 발전의 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귀농-귀어의 훌륭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의 큰징거미새우 양식기술이전, 창업지원 컨설팅을 이수한 109명 가운데 17명이 창업해 양식장을 운영중이며, 30여 명이 2년 내 창업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축산농협, 농업중앙회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최근 농업중앙회가 실시한 '2018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는 전국 1120여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판매·유통·구매·신용·교육지원사업 등 사업부문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조합에게 주는 농업 최고 권위의 상이다.

광주축협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조합으로 선정됐다. 특히, 신용사업 중

보험항목이 탁월해 4월로 예정된 NH생명보험 및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로 생명·손해 최우수상 2관왕을 수상받을 예정이다.

안명수 조합장은 "1994년 취임한 후 25년간 맡은 바 소임을 잊지 않고 조합원과 임직원을 한마음으로 이끌어왔다"며 "각종 분야에서 잇달아 최우수상을 달성하는 등 광주축협이 국내 최고 조합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지역농협 4급 특별승진 10명 배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2019년 농업경제부문 지역농협 4급 특별승진 전형'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명이 승진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경제부문 특별승진은 매년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농산물판매, 연합사업, 농기계은행, 로컬푸드 등 10여개 부문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수치에 따라 부문별 상위 농협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전남에서는 전국 지역농협 4급 특별승진 전형 합격자 총 44명 중 전남에서만 10명이 배출돼 타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특별승진자 명단은 ▲고광인(군서농협) ▲정운철(목포농협) ▲황철현(진상농협) ▲김영래(순천농협) ▲조병룡(영광농협) ▲이석수(서영암농협) ▲김완중(고서농협) ▲조성진(천지농협) ▲김성근(완도농협) ▲장미경(나비골농협) 등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이번 영예를 안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들의 땀은 반드시 전남농업인 소득증대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전남농협 모든 임직원이 현장중심 경영으로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신청하세요"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총 500억원 규모,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신보 특별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에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

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희망 농가는 4월 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신보 특별보증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혼란스러운 장세... 단기 순환매 기대
5G·미세먼지관련주 등 테마주 '주목'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며 양대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 목요일은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그리고 개별주식옵션과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가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quadruple witching day-네마녀의 날)였지만 외국인인 선물과 현물에서 순매수를 보이며 무난하게 마감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지만 일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가 엇갈리며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외국인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이 증가하면서 ET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와 반대되는 포지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금요일 외국인인 선물을 대량순매수 했는데(8871계약, 단순현물금액환산시 1.2조원), 미결제약정 증가를 고려하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미·중 무역협상타결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외국인의 공격적 신규포지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 외국인의 선물매수 포지션이 다시 청산되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지난주 모닝뉴스 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에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4월말 회담 가능성을 보도했다. 예전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회담연기 이유가 미국이 중국의 양보를 받아낼려고 남중국해와 신장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자 중국측은 시진핑주석이 실무·공식방문이 아닌 국민방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다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됐다.

하지만 미국이 시진핑주석을 국빈으로 초대할 경우에는 그럴 수 없고 모든 합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되므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결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19일-20일에 FOMC 회의와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이어오고 있고 1월 FOMC회의에서 자산 축소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미 충분히 시장친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대달만한 추가적인 조치는 제한적이다.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동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확인시켜주면서 점도표상 2회 인상에서 1회인상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예상된다.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FOMC 이후에 시중금리 인상가능성도 소폭 존재하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며 이머징시장으로 자금 이동가능성도 있어 국내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도 이런 요인으로 선행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순매수로 이달 들어 소외되었던 거래소 대형주도 순환매장의 한 축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수입이 확산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형주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5G, 범중국어권 소비주(호텔·레저, 화장품·의류), 저평가 신규성장주, 미세먼지관련주 등 기존 테마주와 함께 정부 민자투자 확대에 건설과 낙폭과대 대형주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대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장기투자자 관점에서는 실적대비(PER)와 자산가치(PBR)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중형증권사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기업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2011 프리엄브랜드대상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속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